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The Flat Structure and Transformation of Southern Royal Villa
in Joseon Dynasty

이 종 서*

Lee, Jong-Seo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Abstract

Southern Royal Villa served as an accommodation for the prince in early Joseon Dynasty, and as an official residence and banquet room for Chinese diplomats in the later period. It was facing south and was located at the southern part of the old town of Seoul and to the north of the Southern Gate. The place was divided into four parts: the outmost, the middle, the inner-middle and the inner part beginning from the south and with important buildings placed in the inner part. The residence for the first and the second highest diplomats was situated at the northernmost location. The residence for the highest diplomat was a two-story building. On the west side of the residence was the large scale Western Banquet Room. It consisted of a single wide hall suited for a grand ceremony, and had the greatest formality and solemnity. On the southwestern side of the diplomatic residence was a building which was called Momchae before the early 17th century and Namru(南樓) after the 19th century. Namru in the inner-middle part is the half-sized remnant of Momchae, which used to be the largest building in the Southern Royal Villa. The title 'Momchae (meaning Main Building)' signifies that the building represented the entire Villa when it was built as an accommodation for princes. The layout of the Villa in early Joseon Dynasty, which was centered around Momchae, is highly likely to have been a common structure of royal villa for princes during the period.

주제어 : 남별궁, 관소(館所), 내부 영역, 정·부사방, 서연청, 몸채[身梗]

Keywords : Southern Royal Villa, official diplomatic residence(館所), the division of place, the first/second highest diplomats' residence, Western Banquet Room, The Main Building(Momcha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에 왕자·공주가 궁에서 나가 살기 위해 도성 안에 지은 집을 '방(房)'이라고 하였다. 방의 주인이 국왕이 되면 방은 '본궁'으로 불리며 영구히 국가 소유가 되었다. 본궁은 역대의 왕비·세자빈에게 사적 재산으로 승계되는 저택, 국왕이 피병 등의 목적으로 임시로 거처하는 저택 등과 함께 '별궁'으로 통칭하였으며, 방과 더불어 '궁방'으로 불렸다. 궁방은 궁궐 건축이자 최상층 양반 주택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분석 대상이

된다.

그러나 궁방(宮房)은 건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도 대부분 19세기의 건축이다. 따라서 궁방 건축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의 개별 사례에 치우쳐 있다.¹⁾

그런데 조선전기 건축인 '남별궁(南別宮)'은 원구단 축조로 인하여 1897년 무렵 철거하기까지 장기간 유지되었다. 남별궁은 '소공주(小公主)'의 집이었다고 하며,

1) 주남철, 「조선시대 청평위궁(淸平尉宮)의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7, 2011 ; 송인호·조은주, 「조선 별궁(別宮)의 도시 위치와 英祖의 親迎」,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5, 2011 ; 정정남, 「효종대 仁慶宮內宮家의 건립과 그 이후 宮域의 변화」, 서울학연구, 39, 2010 ;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宮房)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3(통권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주남철, 『궁집』 일지사, 2003

* Corresponding Author : ljs6102@naver.com

선조가 1583년(선조 16)에 확장하여 의안군에게 주었다. 임진왜란 중에 선조는 이곳을 자주 방문하여 명나라 장수와 사신을 접견하였다.²⁾ 이때에 ‘남별궁’이라는 관용적인 명칭이 생긴 듯하다. 이후 남별궁은 중국 사신이 묵는 ‘관소(館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별궁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분석하면 관소로 쓰인 조선후기 외교 현장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조선전기 의안군방의 구조를 도출하고, 관소의 전형적 구조가 성립하기까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왕자 저택이었던 조선전기 의안군방의 구조와 조선후기 남별궁 관소의 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이용하는 문헌은 주로 건물의 위치와 평면 구획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에, 본고에서 확인하는 내용도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다.³⁾

1-2. 분석 대상 자료

본고에서 분석할 자료는 『영접도감군색등록』, 『영접도감군색의궤』, 『빈례총람』이다. 『영접도감군색등록』은 1608년(광해군 즉위) 3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명 사신을 접대한 기록을 정리한 자료이다. 임진왜란 직후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남별궁(관소)의 구조는 1583년의 ‘의안군방’에 가장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문을 포함한 건물의 명칭, 건물 내부 구획의 명칭이 확인된다. 바닥에 깔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 수도 확인되어 건물

2) 『선조실록』 권60, 선조 28년(1595) 2월 11일(갑인)

3) 남별궁의 궁방 및 사신 숙소로서의 건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별궁에 집중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정남은 장서각 소장 「소공동홍고양가도형」과 「사대부가배치도형」을 남별궁의 가도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남별궁을 살폈다(「임진왜란 이후 남별궁의 공해적 역할과 그 공간 활용」, 『건축역사연구』 18-4(통권 65), 2009).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가도는 남별궁과 무관한 것이어서 연구의 전체에 오류가 있다. 가도 중의 ‘사우’와 ‘별묘’만 보아도 이 가도는 관소가 되기 어렵다. 사우·별묘는 사망자를 전제한 표현이고, 별묘는 불천위 사당에, 사우는 부·조·증조·고조의 사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본고에서 분석하는 『빈례총람』 등의 자료는 정정남이 황제의 궐패를 보관하는 장소로 비정한 사우가 남별궁에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남별궁의 각 건물로 비정한 건물들도 남별궁과 무관함을 알려준다. 또한 정정남은 「소공동홍고양가도형」이 동향이어서, 사료에서 확인되는, 서연청, 복원 등 방위 표시가 있는 건물이나 공간 명칭이 정정남이 비정한 건물이나 공간의 방위와 맞지 않자 사료 상의 방위를 절대적 방위가 아닌 상대적 방위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남별궁의 좌향이 남향이고 방위가 표시된 공간이나 건물도 방위 표시대로 자리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정정남의 연구는 남별궁에 집중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사실의 실증성과 논리의 정합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정정남이 이용한 「소공동홍고양가도형」에서는 남서쪽 담장 모퉁이 밖에 ‘남별궁(南別宮)’이라고 표기해 놓았다. 이는 홍고양 가의 남서쪽 담장이 남별궁과 접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면의 규모와 건물 내부 구획의 상대적 면적까지 가늠할 수 있다. 1634년(인조 12)의 『승정잡술군색의궤』는 마지막 명 사신을 접대한 의궤로서 기록 체제가 정연하다. 『영접도감군색등록』과 비교하면 건물 내부 구획의 명칭이 달라진 것이 많아 명 사신의 숙소로 굳어지면서 발생한 명칭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7세기 전반의 남별궁은 1608년의 『영접도감군색등록』을 위주로 파악하되 일부 내용은 1634년의 『승정잡술군색의궤』를 이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1819년(순조 19)에 작성한 『빈례총람(饋禮總覽)』에서 청 사신의 숙소와 외교 의례에 적합하게 구조된 관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⁴⁾ 『빈례총람』은 청의 칙사를 접대하는 제반 준비와 절차를 규정한 지침서이다.⁵⁾ ‘관소(館所)’는 칙사의 거처였으므로, 관소의 건물 배치와 칸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특히 ‘수리’ 항목에서는 건물의 명칭, 건물 내부 각 구획의 칸수와 용도, 다른 건물과의 상대적 위치가 확인된다. ‘관소배설(館所排設)’ 항목에는 ‘지의(地衣)’를 구성하는 ‘석자(席子)’의 수를 기록하여 건물과 건물 내부 구획의 상대적 면적을 가늠할 수 있다.⁶⁾ 또한 ‘정사방’과 ‘부사방’에서 주요 건물에 이르는 행보석(行步席)의 방위와 행보석을 구성하는 석자의 수를 기록하여 건물간의 상대적인 거리까지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빈례총람』에서 확인되는 관소의 건물 배치와 규모, 평면 등을 『영접도감군색등록』과 『승정잡술군색의궤』와 비교하면 17세기 전반 남별궁과의 일치 여부, 변화의 정도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⁷⁾

4) 『순조실록』 권22 순조 19년(1819) 6월 23일(계축)

5) 『승정원일기』 2117책 순조 19년(1819) 6월 22일(임자)

6) 지의(地衣)를 구성하는 모든 석자의 크기가 동일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빈례총람』의 각 항목은 규범적이고 일괄적인 적용을 위한 설계의 성격이 강하므로, 필자는 『빈례총람』의 석자 수가 구획의 넓이를 반영한다고 추정한다.

7) 이하 『영접도감군색등록』(청구기호 奎 14552, 奎 14553)은 『군색등록(1608)』으로 표기하고, 『영접도감군색의궤』(奎 14565, 奎 14566)는 『군색의궤(1634)』로 표기하였다. 『빈례총람』(청구기호 奎 1344-v.1-3, 奎 5434-v.1-3, 奎 17273-v.1-3)도 『빈례총람(1819)』으로 표기하였다. 이들 자료는 영인이나 번역되지 않았으므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문자료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http://kyu.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빈례총람(1819)』은 ‘수리’와 ‘관소배설’ 항목으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쪽수를 제시하며,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쪽수를 제시할 것이다.

2. 남별궁의 좌향(坐向)과 영역 구분

조선시대에 남별궁은 남부 회현방에 속하였다.⁸⁾ 1840년에 작성한 「수선전도(首善全圖)」에서는⁹⁾ 남별궁의 위치와 좌향, 주위의 가로망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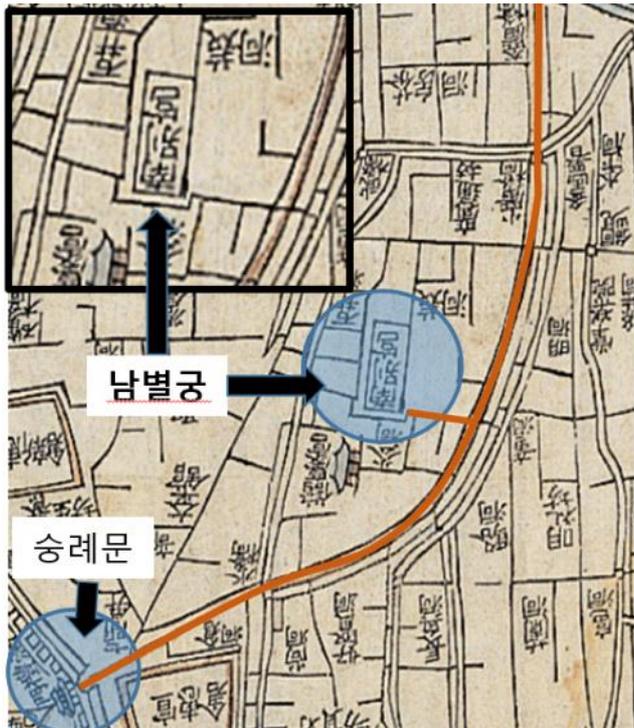


그림 1. 남별궁의 위치와 주위의 가로

〈그림 1〉에서 보듯 남별궁은 승례문에서 종로를 연결하는 대로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대지의 형태를 보면 남향에 가깝다. 그러므로 국왕과 사신의 행차는 지금의 남대문로에 해당하는 남북축 대로, 남별궁 남쪽 담장 밖의 동서축 가로, 남별궁 내부의 남북축 동선을 따랐을 것이다. 이러한 동선은 순조의 남별궁 행차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¹⁰⁾ 사신이 승례문을 통하여 들어오도록 정해진 것도 이와 같은 동선을 확인해 준다.¹¹⁾

8) 『한경지략』 권1 궁실 「남별궁」 “(남별궁은) 남부 회현방에 있는데 지금은 칙사를 접대하는 곳이다[在南部會賢坊, 今之接待勅使之所]” 본고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한문 기록은 한글만 제시한다. 번역되지 않은 기록은 번역과 원문을 모두 제시하되, 글자를 따라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경우 한문 원문만 제시한다.

9)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번호7444)

10) 『승정원일기』 2135책 순조 20년(1820) 11월 9일(임술) “협양문, 숙장문, 진선문, 돈화문을 나가 종가를 경유하여 남별궁에 들어갔다[出協陽門·肅章門·進善門·敦化門 路由鍾街 入南別宮].”

11) 『승정원일기』 124책 효종 3년(1652) 6월 9일(기유) “승정원에서 아뢰었다. 전지하시기를 ‘모화관에서 칙서를 맞이한 후에 환궁할 때에 비록 창덕궁이 멀어도 칙사는 승례문을 거쳐 길을 잡아 잡히

그러므로 남별궁의 내부 영역은 남쪽이 ‘외(外)’ 북쪽이 ‘내(內)’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군색등록(1608)』의 수직군 규정에서는 남별궁의 전체 영역 및 내부 소영역을 구획했던 문들이 확인된다.

표 1. 『군색등록(1608)』의 문과 경비 인원

문 이름	수직군	비고
신동문(新東門)	6	1606년에 시행
서문	6	
구동문	2	
미면색(米麵色) 모퉁이 소문	3	
잡물색(雜物色) 소문	4	
동변 주방 신동문	2	
사랑(舍廊) 내중문	2	
내남정문(內南井門)	4	
외남중문(外南中門)	6	
내남중문(內南中門)	4	
두목방서쪽모퉁이문	2	
내중사랑문	2	
내중사랑문과 연이어 배치된 소문	2	
서연청남중문	2	
동협문	2	
서협문	2	
서장문(西牆門)	4	1608년에 시행
어실(御室) 대청 중문	4	
소협문	2	
개춘정동산내서문 (개춘정동산)외서문	2 2	

위 〈표 1〉은 1606년에 수직군을 분정한 내역과 여기에 더하여 1608년에 새로 분정할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¹²⁾ 개춘정이 있는 동산의 내서문과 외서문을 제외한 문들은 1606년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를 보고 관광하며 서서히 들어온다...”라고 하셨습니다[政院啓曰 傳曰 慕華館迎勅後還宮時 雖昌德之遠 勅使由崇禮門作路 雜戲觀光 徐徐入來]”

12) 『영접도감군색등록(1608)』 215~221쪽 “하나. 도감의 감결(甘結) 내용에 ‘병오년(1606)에 사신이 왔을 때의 등록을 상고하여 각 차비 군사들 감결에 후록하니 살펴서 시행할 일[丙午年 天使時膳錄相考 各差備軍士 甘結 後錄爲去乎 相考舉行事] 후(後) 新東門六名...西門六名...舊東門二名...米麵色隅小門三名...雜物色小東門四名...東邊廚房新東門二名...舍廊內中門二名...內南井門四名...外南中門 六名...內南中門 四名...外南中門一員...頭目房西隅門二名...內中舍廊門二名...連排小門二名...西宴廳南中門二名...東俠門二名...西俠門二名...西牆門四名...御室大廳中門四名...小俠門二名...이상은 병오년 등록에 들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사신을 맞이하여 분정할 때에 개춘정 밖 동산의 내서문 수직군사 2명과 외서문 군사 2명을 분정[已上丙午膳錄付 今番天使時分定次 皆春亭外東山 內西門守直軍士二名 外西門軍士二名]...”

이들 문들은 문의 표기 형태로부터 위치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잡물색소문’과 같은 표기는 특정한 기능을 지닌 건물을 구획하는 문임을 알 수 있다. ‘내남중문’과 같은 표기는 남별궁의 내부 영역을 구획하는 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직군 수는 문의 크기나 위상을 반영하는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수직군이 가장 많은 문은 신동문·서문·외남중문이다. 각기 6명의 수직군을 배치하였다. ‘동·서·외남중’의 표기 형태는 이들 문이 남별궁의 전체 경계와 내부의 소 영역을 구획하는 기능을 했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잡물색소문·내남정문(內南井門)·내남중문·서장문·어실대청중문에 수직군 4인을 배치하였다. 이들 중 잡물색소문·어실중문은 특정한 성격의 건물을 구획하고, 내남중문은 내부 영역을 구획하는 문으로 볼 수 있다. 내남정문(內南井門)은 『승정원일기』에서 대략의 위치가 확인된다.

세 사신(三使)의 주방이 침실과 매우 가까워 연기가 늘 가득하니 편치 못하다. 물려서 남정문(南井門) 근처에 다시 짓는 게 좋겠다. 구동문 북쪽으로부터 내남정문 사이에 담을 극히 높게 쌓아 안에서 쓰는 땅으로 삼고...¹³⁾

위 인용문은 청 사신이 주방을 남쪽으로 물려 지을 것을 요구한 내용이다. (내)남정문(南井門) 근처로 옮기되, 구동문 북쪽부터 내남정문 사이에 담을 높이 쌓아 사신단이 사용하는 영역[內用之地]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내남정문은 사신단 숙소의 남동쪽에서 숙소 영역 안과 밖을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신동문’이 구동문의 남쪽에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내남(內南)’이라는 표기 형태로부터 동서 축선 상에 내남정문과 내남중문이 위치했으며, 내남정문은 내남중문의 동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인과 2인이 배치된 문들을 보면, 구동문을 제외하면, 미면색·사랑·두목방·서연청 등 개별 건물을 구획하는 성격의 문이다. 서연청의 남중문과 동·서 협문은 서연청이 별도의 영역으로 구획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본래 서연청 남중문에서 국왕과 사신이 만났으나 1608년에 서연청 남중문을 헐고 내남중문에서 만나도록 변경한 것으로부터¹⁴⁾ 내남중문과 서연

청 남중문이 동·서로 배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6인을 배치한 신동문·서문·외남중문과 4인을 배치한 내남중문·내남정문(內南井門)·서장문(西牆門), 2인을 배치한 구동문·서연청 남중문에 근거하여 남별궁의 경계와 내부의 주요 영역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신동문과 서문은 남별궁의 대문에 해당한다. <표 1>은 『군색등록(1608)』에서 수직군을 배치한 모든 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별도의 대문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직군 수와 함께 기록했을 것이다. 신동문과 서문이 대문의 기능을 한 것은 인조 때에 ‘동·서대문’으로 표현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¹⁵⁾

그런데 1606년에 동쪽 담장에 ‘신동문’과 ‘구동문’이 남·북으로 위치한 것은 기존의 동문을 두고 새로 동문을 지었음을 알려준다. 반면에 서문은 신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본래 서문이 대문의 역할을 했으나 동문의 기능이 강화되어 서문과 동등한 규모와 위상을 지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¹⁶⁾

다음으로 외남중문은 동·서 대문과 더불어 6인의 수직군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外)’라는 표현으로부터 ‘내’와 ‘외’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4인을 배치한 내남중문은 서쪽의 서연청 남중문, 동쪽의 내남정문(內南井門)과 더불어 외남중문 북쪽의 영역을 다시 내·외로 분리하는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정·부사 숙소의 주방이 내남정문 북쪽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거니와, 사신단이 묵거나 의례를 베푸는 주요 건물들이 내남중문 안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국왕의 동선에서도 확인된다. 『승정원일기』에

하는데 이(서연청) 중문이 협착하여 편치 않으므로 이미 철거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는 마땅히 내남중문에서 가마를 내립니다. 임금의 어가가 선도하는 지영치소 역시 내남중문 안의 서변에 작은 장막을 치고 행례하는 것이 좋을지 내남중문 밖의 어소로부터 그대로 나와서 행할지 상세히 알지 못하니...[一公事內...今番賜祭詔使入京日 直詣于南別宮 於西宴廳闕庭排設行禮 而同中門狹窄非便 已爲啓請撤毀 以此詔使當於內南中門外下轎矣 大駕先導祇迎處所 亦於內南中門內西邊似當以設小次行禮爲乎喻 內南中門外自御所仍出行之教是白乎喻詳知不得爲在果令禮曹前期定奪是乎拮]

15) “『승정원일기』 61책 인조 15년(1637) 11월 3일(정묘) “척사가 묵는 남별궁의 동·서 대문과 구동문, 내남중문, 연향문 모두 5개 문의 소란을 금하는 도사 5인과 서리 5인이 부족합니다[勅使所館南別宮 東·西大門 舊東門 內南中門 宴享門合五門禁亂都事五員 書吏五人不足].”

16) 임진왜란 이전에는 광화문에서 승례문에 이르는 길이 가장 중요한 간선 도로였을 것이다. 중국 사신의 숙소인 태평관도 이 길과 접해 있었다. 임진왜란 중에 선조는 남별궁의 서쪽에 있는 정릉동행궁에 거처하며 남별궁을 왕래하였다. 따라서 선조 때까지는 서문이 대문의 기능을 했을 것이다. 반면에 임진왜란 직후 문묘와 창덕궁을 중건하고, 현재의 남대문로를 통한 사신 왕래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신동문을 서문과 같은 규모로 신축했다고 볼 수 있다.

13) 『승정원일기』 111책, 효종 1년(1650) 3월 13일(병인) “三使廚房則寢室至近 煙氣常漲坐不安席 退改造作于南井門近處宜當 自舊東門北隅內南井門 其間築牆極高 以爲內用之地...”

14) 312~313쪽, “하나. 공사 내에...이번에 사제조사가 입경하는 날에 곧바로 남별궁에 이르러 서연청의 궐정에서 배설하여 의례를 행

서는 사신이 국왕을 영송하는 지점으로 ‘중문’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1650년에 효종은 남별궁에 이르러 ‘중문 밖의 막차’에 들어가 쉬다가 ‘관소’에 다다르자 사신들이 ‘중문 안’에서 맞이하여 관소에 이르렀다.¹⁷⁾ 이 기록은 사신이 국왕을 맞이하는 지점이 ‘(내남)중문’임을 알려줄뿐더러 ‘관소’는 남별궁의 내남중문 북쪽 사신의 숙소와 의례용 건물이 있는 영역을 특정하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향으로 자리잡은 남별궁은 동·서 대문과 외남중문 사이의 영역, 외남중문과 내남중문 사이의 영역, 내남중문 이북의 영역으로 크게 삼분할 수 있다.

이제까지 「수선전도」에서 남별궁의 위치와 좌향, 남별궁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확인하였다. 이어 『군색등록(1608)』의 문 이름과 수직군 수에 근거하여 문의 크기와 위상, 남별궁 내부 영역의 구획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빈례총람(1819)』과 『군색등록(1608)』·『군색의궤(1634)』를 비교하여 개별 건물들의 위치, 건물의 평면 구획과 변화, 내남중문 이북에 위치한 건물 간의 상대적 거리를 확인하겠다.

3. 남별궁의 건물 배치와 평면 구조

3-1. 주요 건물

(1) 정사방(正使房)·부사방(副使房)

『빈례총람(1819)』의 ‘수리’ 항목은 ‘정사방’과 ‘부사방’부터 기록하였다. ‘관소배설’ 항목에서는 정사방과 부사방을 쉬는 곳이라는 뜻의 ‘혈소(歇所)’로 지칭하였다. 『빈례총람(1819)』의 정사방·부사방을 정리하면 <표 2-1> 과 같다.

정사방은 ‘명설루 아래 동변’에 위치했으며 방(온돌) 2칸, 마루 4칸, 양방(마루방) 2칸, 전후퇴 8칸으로 구획하였다. 정사방에는 <표2-1>에 정리한 구획 이외에도 부속 건물이 있었다. ‘수리’ 항목에서는 각기 2칸으로 구성된 부엌[廚], 차칸[茶間], 숙설소(熟設所), 허간[虛間], 측간이 확인되며, 동통내문(東通內門) 1칸, 재살칸(宰殺間) 3칸도 확인된다. 북쪽에는 동·서 협문이 있었다.¹⁸⁾ 따라서 ‘정사방’은 16칸의 중심 건물과 14칸

이상의 부속채로 구성되었다.

표 2-1. 『빈례총람(1819)』의 정사방·부사방

건물구분 (위치)	공간명	칸수	지의석자	비고
정사방 (명설루 아래 동변)	방	2칸	9장	
	대청	4칸	20장	
	양방(涼房)	2칸	10장 반	
	전퇴	4칸	14장 반	반퇴
	후퇴	4칸	14장 반	반퇴
부사방 (정사방 서변)	방	2칸	14장	7장씩 2부
	대청	6칸	38장	
	서퇴	2칸	14장	

부사방은 방2칸, 대청 6칸, 서퇴 2칸으로 구성되었다. 부사방에도 부속 건물이 딸려 있었다. 각 2칸의 부엌[廚], 서퇴(西退),¹⁹⁾ 측간이 있었다. 또한 정사방으로 통하는 통내문이 있었다.²⁰⁾

이렇듯 중심 건물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정사방·부사방은 『군색등록(1608)』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방배(房排)’ 항목에서 정·부사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2-2>와 같다. 『군색등록(1608)』에는 건물의 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구획의 명칭과 석자수를 통해 『빈례총람(1819)』에 기재한 건물과 동일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²¹⁾

各二間…東通內門一間 宰殺間三間…北邊東西挾門”

‘관소배설’ 항목의 ‘칸 구획은 ‘수리’ 항목과 거의 일치할 뿐더러,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수만 본고에 유용한 정보이므로 원문을 제시하지 않는다.

19) 서퇴는 ‘수리’에서 부속 공간 부분에 기록했으나 ‘관소배설’에서는 부사방의 지의를 기록하면서 함께 기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심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 “副使房[正使房西邊○房二間…大廳六間…廚及西退兩間各二間…正使房通內門一間”

21) 『군색등록(1608)』에서 지의를 구성하는 석자 수가 같은 공간 인데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해당 기록(문서)의 작성 시기를 보면 계획한 수와 실제로 칸 수의 차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를 비교해도 동일한 평면에 칸 석자수가 같지 않다. 이는 석자를 연결하는 방법이나 석자의 규격이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200여년 후에 작성한 『빈례총람(1819)』에서 규범적 계획으로 설정한 석자수 역시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에는 석자 수가 건물이나 구획의 면적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각기 다른 자료에 기재된 구획들의 석자수가 일정한 비례로 증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러므로 지의의 석자수는 동일 자료에 기재된 다른 구획 사이의 상대적 면적 차이나 복수의 자료에 기재된 구획의 동일 구획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7) 『승정원일기』 113책 효종 1년(1650) 5월 16일(무진) “상께서 남별궁에 이르러 중문 밖의 막차에 다다랐다…잠시 후에 상께서 관소로 나아가니 여러 칙사가 두목을 거느리고 상을 중문 안에서 맞이하였다. 상과 칙사가 길을 나누어 가서 관소에 이르렀다[上詣南別宮 御中門外幕次…小頃 上進詣館所 諸勅奉頭目迎上于中門內 上與勅分路而行 至館所]”

18) “修理…館所各處…正使房[明雪樓下東邊○房二間…大廳四間…涼房二間…前面半退四間…後面半退四間…廚及茶間 熟設所 虛間 廁間

표 2-2. 『군색등록(1608)』의 정사방·부사방²²⁾

건물 구분	공간명	지의석자	비고
정사방	방	7장	
	외대청	19장	
	남퇴	18장	
	북퇴	18장	
	서복방 (西卜房)	9장	
부사방	온돌방	14장	9장을 붙인 1부와 5장을 붙인 1부를 잇대어 깔
	서상외대청 (西上外大廳)	34장	
	서퇴	12장	

『빈례총람(1819)』과 『군색등록(1608)』 모두 정사방을 5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부사방을 3개의 구획으로 나누었다. 또한 정사방의 ‘대청(20장)’과 ‘외대청(19장)’, 부사방의 ‘대청(38장)’과 ‘서상외대청(34장)’의 석자수 차이가 거의 같은 비례를 보인다. 정사방의 ‘양방(10장 반)’과 ‘서복방(9장), 부사방의 ‘서퇴(14장)’와 ‘서퇴(12장)’의 비례도 거의 같다. 따라서 『빈례총람(1819)』 정사방의 대청·양방·전퇴·후퇴와 부사방의 대청·서퇴는 『군색등록(1608)』의 외대청·서복방·남퇴·북퇴, 서상외대청·서퇴와 동일한 공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사신의 숙소로 사용된 두 건물은 1608년부터 1819년에 이르기까지 평면에 변화가 없었다.

(2) 산우루(명설루)

『빈례총람(1819)』의 수리 항목에서는 정사방, 부사방에 이어 ‘명설루(明雪樓)’를 기록하였다. 명설루는 기준 건물인 정사방의 위치를 표시하는 건물이어서, 상대적 위치를 알려주는 표현이 없다. 명설루의 구획과 석자를 정리하면 <표 3-1> 과 같다.

명설루는 중앙에 6칸의 대청이 있고, 서쪽에 마루방인 양방(涼房)이 있으며, 동·남·북쪽에 퇴를 두른 평면

을 갖추었다. 그런데 『군색등록(1608)』에는 명설루가 보이지 않고, ‘산우루(山雨樓)’가 보인다. 명설루라는 이름은 1735년(영조 11)에 청 사신이 ‘북루’를 명설루로 이름 짓고 현판을 걸게 하면서 생겼으므로²³⁾ 1608년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표 3-1. 『빈례총람(1819)』의 명설루²⁴⁾

건물구분	공간명	칸수	지의석자	비고
명설루	누(대청)	6칸	27장 반	
	남퇴	5칸	17장	반퇴
	북퇴	5칸	17장 반	반퇴
	동퇴	2칸	8장	반퇴
	양방	2칸	9장	서변

『군색등록(1608)』에서는 ‘산우루’로 이름을 지은 경위가 확인된다. 산우루는 1606년에 명에서 파견된 ‘주씨(朱氏) 성의 정사[朱正使]’가 지었다.²⁵⁾ 이후 명이 멸망하자 명 사신의 필적과 낙관이 있는 산우루 현판을 제거하고 ‘북루’로 불렀을 것이다. 이 북루에 청 사신이 이름을 붙임으로써 명설루가 되었다. 1735년 이후의 명설루가 이전의 산우루임은 『군색등록(1608)』에 기록된 산우루의 내부 구획에서도 확인된다.

표 3-2. 『군색등록(1608)』의 산우루²⁶⁾

건물 구분	공간명	석자	비고
산우루	정칸	33장	
	동퇴	5장	동북으로 5장을 깔고 북퇴에 14장을 붙인 1부와 4장을 붙인 1부를 잇대어 깔
	북퇴	18장	
	남퇴 서변	8장	4장을 붙인 지의 2부를 잇대어 깔
	층교	2장 반	
	서랑방	9장	

<표 3-2> 에서 보듯 산우루는 상·하층을 연결하는

23)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 11월 13일(무신) “상척사[정사]가 북루에 올라 ‘명설루’라는 큰 세 글자 및 소서(小序) 40자를 쓰고 인장을 찍어 현판을 만들어 새겨서 들이라고 하였습니다[上勅上北樓 手書明雪樓三大字及小序四十字 着圖署 使之懸板刻入云].”

24) “明雪樓[樓 六間…南北半退 各五間…東半退 二間…西邊涼房 二間…]”

25) 149쪽, “같은 방의 누 아래에 병오년(1606)에 주 정사가 산우루라고 이름 지은 (누) 정칸의 배설[同房樓下丙午年朱正使名爲山雨樓正間排設].”

26) 874~875쪽, “山雨樓正間排設 青木綿縐有紋席三十三張付一浮新造…東北青木縐有紋席五張付一浮仍用 北退連排同縐常紋席十四張付一浮新造 連排同縐同席四張付一浮 層橋上青木縐有紋席二張半付一浮仍用 西涼房青木縐有紋席九張付一浮仍用”

22) “방의 배설. 푸른 목면으로 가선을 두른 채화석 7장을 붙인 3부 내에 1부는 선후에 (천사방에 ; 필자주) 그대로 배설하고, 2부는 부천사(방에 배설하는 것; 필자주)인데 이번에는 배설하지 않는다. 부천사 온돌방은 이번에 빈 방이므로 임시로 새로 더 만든 푸른 목면으로 가선을 두른 백문석 9장을 붙인 1부를 같은 색 5장을 붙인 1부와 잇대어 배설한다[房排 青木縐雜彩花席七張付三浮內一浮先後仍排設 二浮副天使今番不爲排設 副天使溫埃房今番空房假排新加造青木縐白紋席九張付一浮 連排同色五張付一浮 外大廳 青木縐別紋席十九張付新造一浮 南退 青木縐別紋席十八張一浮新造 北退 青木縐別紋席十八張付一浮新造 西卜房 青木縐有紋席六張付一浮新造…副天使房西上外大廳 青木縐有紋席三十四張付一浮…西退 青木縐別紋席十二張付一浮新造(874~875쪽)”

층교(層橋)를 제외하면 정간(正間), 동·북·남퇴, 서랑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5개의 공간 구획은 『빈례총람(1819)』의 명설루와 일치하므로 산우루는 곧 1735년 이후의 명설루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군색등록(1608)』에서는 정사방을 누 아래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사신 접대가 끝나고 물품을 정리한 목록 중에 ‘정사 누 아래 대청 남쪽 퇴의 유문석 18장을 붙인 1부[正使樓下大廳南退有紋十八張付一浮]’라는 표현이 보인다(88~89쪽). ‘정사 누 아래 대청’은 곧 ‘정사방의 누 아래에 있는 대청’의 뜻으로 해석되므로 정사방의 대청이 산우루 하층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1층이 정사방이고 2층이 산우루인 것이다.

이렇듯 산우루는 명설루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층루 구조와 평면 구획은 『빈례총람(1819)』을 편찬한 19세기 전반까지 변하지 않았다. 『빈례총람(1819)』에서도 정사방의 위치를 ‘명설루 아래 동변[明雪樓下東邊]’으로 기록하였다. 『군색등록(1608)』의 기록을 확인했으므로 『빈례총람(1819)』의 ‘명설루 아래 동변’은 ‘명설루 아래층 동쪽’의 뜻임이 분명하다.²⁷⁾

(3) 남루(南樓)

『빈례총람(1819)』의 수리 항목에서는 정사방·부사방, 명설루에 이어 ‘남루’를 기록하였다.²⁸⁾ 정사방 서남쪽에 있는 남루는 사신의 고위 수행원인 두목의 숙소로 배정하였다. 남루는 ‘수리’ 항목에 기재된 내용과 ‘관소배설’ 항목에 기재된 내용에 차이가 있다. 『빈례총람(1819)』에서 남루의 공간 구획을 정리하면 <표 4-1> 과 같다.

‘남루’는 모두 12부분으로 구획되었다. 그런데 남루는 대청, 동·서온돌, 동·서퇴만 수리와 관소배설 두 항목에서 모두 확인된다. 이로부터 남루는 구획이 복잡했으며, 중심 공간과 부속 공간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리와 관소배설 항목에서 모두 확인되는 공간이 남루의 핵심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27) 『빈례총람(1819)』에서 2층 명설루와 1층 정사방을 비교하면 명설루가 아래층의 정사방보다 칸과 석자 수가 많다. 명설루는 총 20칸이고 석자가 78장인데 반해, 정사방은 총 16칸이고, 석자가 67장이어서 상층이 채감하는 구조는 물론, 적층구조로 상정해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빈례총람(1819)』에서는 ‘정사방’, ‘부사방’을 개별 방이 아니라 여러 구획을 포괄하는 단일 영역의 의미로 쓰면서, 정사방이 ‘명설루 아래 동변’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방·대청·퇴로 구획한 정사방이 명설루 하층 전체 면적이 아니었고, 명설루 서변을 별도의 영역으로 구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8) “南樓[正使房西南 ○北溫埃二間 副使頭目所接…大廳六間 南二間…東西溫埃各一間 譯官所接…前面半退四間…東西半退各三間半…]”

표 4-1. 『빈례총람(1819)』의 남루²⁹⁾

건물 구분	공간명	칸수	석자	비고
남루 (정사방 서남쪽)	북온돌	2칸		부사두목 거처. ‘수리’에서만 확인됨
	대청	6칸	38장 반	
	남(대청남?)	2칸	13장 반	‘수리’에서만 확인됨
	동온돌	1칸	6장 반	역관 거처
	서온돌	1칸	6장 반	역관 거처
	동퇴	3칸 반	13장 반	반퇴
	서퇴	3칸 반	12장 반	반퇴
	전면퇴(남퇴)	4칸	16장 반	반퇴
	중문내통이칸	2칸	10장	‘관소배설’에서만 확인됨
	정사복방		9장	
	누하 서변 제1온돌		10장	
	누하 서변 제2온돌		14장	

남루는, 두 항목에서 모두 확인되는 구획의 칸수만 총 21칸에 달하여, 규모가 큰 건물이었다. 또한 ‘남루’라는 명칭은 이 건물이 중층임을 알려줄 뿐더러 ‘누하 서변 제1·제2 온돌’이라는 표현은 상·하층 모두를 구획하여 사용하는 층루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다만, 기록이 충분치 못하여 <표 4-1>의 정보만으로는 ‘남루’의 구체적인 평면 구조를 도출하기 어렵다.

그런데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에는 ‘남루’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고 ‘신경(身梗)’ 즉 ‘몸채’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몸채’의 평면 구획은 『군색의궤(1634)』가 『군색등록(1608)』보다 자세하다.

<표 4-2>에서 보듯 『군색의궤(1634)』에서는 ‘몸채[身梗]’를 구성하는 구획들이 자세하게 확인된다. 몸채는 두 개의 ‘대청’을 중심으로 두 영역으로 나뉘었다. 대청 둘 중 하나는 ‘대청정간’으로 표현하였고 다른 하나는 ‘대청’으로 표현하였다. ‘대청정간’과 ‘대청’으로 불린 영역 중에 ‘대청정간’이 『빈례총람(1819)』의 ‘남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29) 「수리」 “南樓[正使房西南○北溫埃二間 副使頭目所接…大廳六間 南二間… 東西溫埃各一間 譯官所接…前面半退四間…東西半退各三間半…]”, 「관소배설」 “南樓 大廳[靑木縮白紋地衣三十八張半付一浮…十三張半付一浮○西退 十二張付一浮○東退 十三張半付一浮 ○南退十六張半付一浮○西溫埃 六張付一浮○東溫埃 六張付一浮○中門內通二間 十張付一浮 或排或否○正使下房九張付一浮○樓下西邊第一溫埃十張半付一浮○第二溫埃 十四張付一浮…]”

표 4-2. 『군색의궤(1634)』의 ‘신경[몸채]’³⁰⁾

건물구분	중구분	공간명	석자	비고
신경 [몸채]	대청 정간 (大廳 正間)	정간	35장	
		동퇴	12장	
		서퇴	11장 반	
		남퇴	14장	원문은 40장
		복상방	11장 반	
		동부사온돌	5장 반	
		서부사온돌	6장	
	대청	온돌	7장	통2칸
		대청	35장	
		복소퇴	3장 2문(文)	
		동퇴	5장	
		남퇴	14장 6문	
		북퇴	12장	
		남소퇴	2장	

『빈례총람(1819)』의 ‘수리’ 항목에서 남루는 ‘남(대청남)’으로 표기된 2칸을 제외하면 북온돌, 대청, 동·서 온돌, 동·서·전면(남) 퇴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평면 구획은 『군색의궤(1634)』의 몸채 ‘대청정간’과 일치한다. 각 구획에 칸 지의의 석자수도 거의 같다. 따라서 『빈례총람(1819)』의 ‘남루’와 『군색의궤(1634)』의 ‘몸채 대청정간’은 동일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군색의궤(1634)』의 ‘몸채 대청’에 해당하는 부분은 『빈례총람(1819)』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군색의궤(1634)』의 ‘몸채 대청정간’과 비교하면 『빈례총람(1819)』에서는 ‘남(대청남)’으로 표기한 2칸을 더 기재했을 뿐 『군색의궤(1634)』중의 ‘몸채 대청’ 영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군색의궤(1634)』의 ‘몸채[身梗] 대청정간’은 후대까지 유지되어 『빈례총람(1819)』에 ‘남루’로 기재한 반면, ‘몸채 대청’은 19세기 전반 이전에 대부분 철거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에서 이 건물을 ‘몸채’로 표기한 것으로부터 이 건물이 본래 남별궁의 중심 건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군색등록(1608)』에서는 ‘몸채 온돌 2칸’을 기록한 뒤 동채·서채를 기록하였다. 이어 동부사와 서부사를 기록하였다.³¹⁾ 이로부터 몸채는 동채와 서채로

구성되고 동채와 서채는 다시 부속 건물을 거느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군색의궤(1634)』의 ‘몸채 대청정간’과 ‘몸채 대청’은 1608년 이전의 ‘몸채 동채’와 ‘몸채 서채’에 해당한다.³²⁾

(4) 서연청(西宴廳)

『빈례총람(1819)』에서는 ‘남루’에 이어 ‘서연청’을 기록하였다.³³⁾ 서연청의 위치는 ‘정사방 서쪽 담장 밖’ 일 뿐더러 건물 이름에 ‘서(西)’ 자가 붙은 것으로부터 주요 건물 중에 가장 서쪽에 위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빈례총람(1819)』에서 서연청의 공간 구획을 정리하면 <표 5> 와 같다. 서연청의 평면은 7부분으로 구획되었다. 서연청은 방으로 구획된 공간이 없으며, ‘북중·북극·북퇴’ 로 표기된 공간이 장방형을 구성하는 정간 및 동·서·남퇴와 결합하였다. 이로부터 서연청의 전체 평면은 ‘凸’자 형태이며 내부는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트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빈례총람(1819)』의 서연청

건물구분	공간명	칸수	석자	비고
서연청 (정사방 서쪽 담장 밖)	정간(正間)	6칸	33장	
	동퇴	11칸	10장 반	
	서퇴		10장 반	
	남퇴		16장 반	
	북중(北中)	3칸	16장 반	
	북극(北極)	3칸	21장	
	북퇴(北退)	3칸	12장	

31) 140~155쪽, “하나, 도감 단자.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응당 설치할 포진과 잡물들을 병오년(1606) 등록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뒤에 기록하되 그대로 쓸 것과 전혀 없는 것과 개비할 것을 각기 그 물품명 아래 기재하니 담당 관청에서 후속한 내용에 의거하여 준비하여 배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후[天使時所入一應鋪陳雜物等乙依丙午瞻錄磨鍊後錄爲白乎矣 仍用者 全無者 改備者 各其名下懸錄爲白去乎 令該司 依後措備進排何如 後 身梗溫堞二間…東梗…西梗…東西附舍…東別廚…西別廚…東上湯(子)房…廁間…]水賜間…西上湯子房…廁間…水賜間]”

32) 몸채의 동·서 채 중 한쪽을 철거한 건물을 『빈례총람(1819)』에서 ‘남루’로 부른 것은 부속채 중 일부분이 중층이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빈례총람(1819)』과 『군색등록(1608)』·『군색의궤(1634)』에서는 이 건물에 대규모 상층부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빈례총람(1819)』에는 ‘누서서변 제 1·제 2 온돌’이 확인된다. 『군색등록(1608)』에도 ‘남루 아랫방[南樓下房]’이라는 표현이 보인다(121쪽). 이는 층루 구조인 ‘남루’는 ‘몸채’의 중심부가 아니라 부속건물에 해당함을 시사한다. ‘몸채’의 일부분이 층루 구조였고, 이 층루에 근거하여 ‘남루’라고 불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3) “西宴廳[副使房西牆外○正間六間 東西南退十一間 北中北極北退各三間 西邊月臺一間御帳處所 東邊補階二間半 補階板二十立使副使帳幕處所 南邊月臺鋪方輒正三間…東邊門 東狹門 小西門]”

30) 500쪽, “身梗大廳正間 白紋席青木箱三十五張付一浮 東退 白紋席青木箱十二張付一浮 西退白紋席青木箱十一張半付一浮 南退白紋席青木箱四十張付一浮…北上房 白紋席青木箱十一張半付一浮…東附舍溫堞白紋席青木箱五張半付一浮 西附舍溫堞白紋席青木箱六張付一浮 身梗大廳溫堞通二間白紋席青木箱七張付二浮 大廳白紋席青木箱三十五張付一浮 北小退別紋席青木箱三張二文付一浮 東退別紋席青木箱五張付一浮 南退別紋席青木箱十四張六文付一浮 北退別紋席青木箱十二張付一浮 南小退有紋席青木箱二張付一浮”

『군색의궤(1634)』에서도 『빈례총람(1819)』과 완전히 일치하는 서연청의 공간 구획과 구획명이 확인된다. 그런데 『군색등록(1608)』에서는 북중·북극 등의 표현이 없고, ‘후정칸(後正間)’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중·북극·북퇴’ 표기는 『군색의궤(1634)』부터 확인된다. ‘후정칸’의 ‘후(後)’가 건물의 뒤쪽(북쪽)을 가리키고 후정칸에 칸 지의의 석자 수가 53장이어서,³⁴⁾ 『빈례총람(1819)』에서 북중·북극·북퇴 칸에 깔도록 규정된 49장과 거의 같다. 따라서 ‘후정칸’은 『군색의궤(1634)』와 『빈례총람(1819)』의 ‘북중·북극·북퇴’에 해당한다. ‘후정칸’은 1608년 이전의 명칭이고, ‘북중·북극·북퇴’는 그 뒤에 생긴 명칭임을 알 수 있다.³⁵⁾

3-2. 기타 건물 및 부속 건물

(1) 개춘정(皆春亭·開春亭)

『빈례총람(1819)』 수리 항목에서 개춘정(皆春亭)은 동북쪽 정원에 있었으며, 방 1칸 반, 대청 2칸 반, 반퇴 3칸으로 구획된 총 7칸의 정자로 확인된다.³⁶⁾ 1608년에 ‘동별실(東別室)’이라고도 불린 개춘정은 1602년에 국왕이 건축을 승인했으며, 1606년에 명 사신이 ‘皆春亭’으로 이름을 지었다.³⁷⁾ 그런데 『빈례총람(1819)』에서는 ‘開春亭’으로 기록하였다. 명이 멸망한 뒤에 첫 글자를 바꿨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춘정에는 황제가 보낸 부의물을 보관하였다. 태평관이 관소였을 때에는 국왕이 태평관의 궐정에서 부의물을 맞이한 뒤 ‘루(樓)’에 옮겨 두었다. 이후 남별궁이 관소가 되자 동북쪽의 별실(개춘정)에 부의물을 보관한 것이다.³⁸⁾

(2) 사랑(斜廊·舍廊)

34) 162~163쪽, “西宴廳排設…後正間青木綿縮常紋席二十九張付一浮仍用 連排青木綿縮有紋席二十四張付一浮仍用”

35) 『빈례총람(1819)』의 서연청은 1734년(영조 10)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것이다(『승정원일기』 영조 10년 4월 22일(정묘)). 내부의 칸 구획이 『군색의궤(1634)』와 일치하여 같은 규모로 복원했음을 알 수 있다.

36) “開春亭[東北園上○房一間半…大廳二間半 退三間…中門一間…]” 『빈례총람(1819)』에서는 개춘정(開春亭)을 먼저 기록하고 서연청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개춘정은 임진왜란 이후의 건축이므로 기타 건물로 처리하였다.

37) 72쪽, “동별실은 임인년(1602)에 국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병오년(1606)년에 주씨 성의 정사가 ‘皆春亭’으로 이름을 지었다[東別室以壬寅年啓下後 丙午年朱正使名爲皆春亭.]”

38) 292쪽, “하나, 공사(公事)의 내용에 ‘사제청의 절목…부의물을 태평관[지금은 남별궁]의 궐정에서 예를 행한 뒤에 누에 옮겨 두는데 [지금은 남별궁의 개춘정]…[一 公事內賜祭廳節目…賻物大平館[今則南別宮]闕庭行禮後 移置樓[今則南別宮皆春亭]…”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에서는 ‘사랑’이 보인다. 『군색등록(1608)』에서는 1608년 이전에 ‘사랑방 대청’에서 내두목(內頭目)에게 별사연을 베풀었으며³⁹⁾ 1608년에도 내중문의 사랑 4칸이 ‘내두목 별사연청’으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⁴⁰⁾ 또한 ‘사랑양청(涼廳)의 두목 연청’이라는 표현도 확인되어,⁴¹⁾ 4칸은 사랑 전체가 아니라 ‘양청’ 부분의 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군색의궤(1634)』에서는 ‘내사랑’과 ‘외사랑’이 확인된다. ‘내사랑’에 2칸의 ‘엄가가(掩假家)’를 지었다.⁴²⁾ ‘외사랑’은 대청·온돌·북퇴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석자 27장, 8장, 3장으로 구성된 지의를 깔았다.⁴³⁾ 석자수로 미루어 대청은 4칸 이상으로 짐작되므로, ‘외사랑’은 『군색등록(1608)』에서 양청(涼廳) 4칸이 ‘내두목 별사연청’으로 쓰인 ‘내중문사랑’으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빈례총람(1819)』에는 ‘사랑’ 명칭이 보이지 않고, ‘관소배설’ 항목에 두목 19인에게 연회를 베푸는 곳으로 ‘중문 외 연칸(宴間)’이 확인된다.⁴⁴⁾ ‘중문밖’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는 『군색등록(1608)』의 ‘사랑(내두목연청)’, 『군색의궤(1634)』의 ‘외사랑’임을 짐작할 수 있다. 건물은 유지하였으나 ‘사랑’ 명칭은 소멸했음을 알 수 있다.

(3) 어실(御室)

국왕이 머무는 곳을 뜻하는 ‘어실’은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에서 모두 확인된다. 『군색등록(1608)』에서 수리할 건물을 ‘어실현문(御室俠門)’, ‘사랑문’, ‘어실중문’의 순서로 기록하여⁴⁵⁾ 어실과 사랑(외사랑)이 인접했음을 알려준다.

어실은 위치와 좌향이 확인된다. 『군색등록(1608)』

39) 411쪽, “하나. 앞의 의궤의 내용에…사랑방의 대청에 내두목 별사연을 배설하는 등의 곳은 각 날의 연향 때에 문을 파수하는 인원을 별도로 정한다[一前儀軌內…斜廊房大廳良中 內頭目別賜宴排設等處 各日宴享時 把門別定.]”

40) 167쪽, “內頭目別賜酒廳 內中門斜廊四間”

41) 217쪽, “舍廊涼廳內頭目宴廳考喧十名假部將一員”

42) 274~276쪽, “各處假家造作秋…內舍廊掩假家二間…”, 87쪽, “賜酒廳內中門斜廊…頭目宴廳 外中門內 東庭假家十五間排設…御室內南中門外西邊門帳青三升一件濟用監”

43) 501쪽, “外舍廊大廳白紋席青木縮二十七張付一浮 溫埃白紋席青木縮八張付一浮 北退白紋席青木縮三張付一浮”

44) 「관소배설」, “頭目十九名[中門外宴間○合青木縮白紋地衣二十張付一浮長興庫○各青木上縮紅木下縮白紋方席一立長興庫備朱漆繩牀一立別工作]”

45) 73쪽, “御室俠門墻庫庫改築…斜廊門前方磚…御室中門外行路方磚…西俠門外方磚十五張無”

에는 ‘어실 내남중문 밖 서쪽문’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어실은 내남중문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었으며, 어실문은 어실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침별을 가리는 보첩(補簾)’을 달아⁴⁶⁾ 동향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군색의궤(1634)』에서도 지의 석자를 어실 대청에 13장, 온돌방에 4장, 동퇴에 7장반을 깔아⁴⁷⁾ 어실이 전면에 퇴를 둔 동향 건물임과 더불어 각 구획의 상대적인 면적까지 알 수 있다.

『빈례총람(1819)』에서는 ‘외남중문 안 서쪽’에 ‘어소차(御小次)’가 보인다.⁴⁸⁾ 어소차는 방 1칸, 대청 3칸, 반퇴 4칸이어서, 방과 대청을 일렬로 배치하고 앞에 퇴를 둔 건물이다. 이는 『군색의궤(1634)』의 내부 구획과 일치할 뿐더러 『군색의궤(1634)』의 석자수에서 유추되는 칸수와도 일치한다.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의 어실은 곧 『빈례총람(1819)』의 ‘어소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어실’ 역시 1608년 이전의 건물을 1819년에도 유지하였다.

(4) 부속 건물

남별궁에는 이외에도 많은 부속건물이 있었다. 이들 건물의 명칭 중에서 남별궁 전체 영역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알려주는 명칭들이 확인된다. 『군색의궤(1634)』에서 이들 건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 『군색의궤(1634)』의 남별궁 부속건물⁴⁹⁾

건물구분	영역구분
내남루(內南樓)	내
내동루(內東樓)	
중내남행랑	중내
중내동행랑	
중내서루	
중서행랑	중
외동루	외
외남행랑	

〈표 6-1〉은 정·부사의 수행원인 두목에게 배정한 부속건물 중 위치나 방위를 지시하는 요소가 있는 것

46) 168쪽, “御室 內南中門外西邊門帳 靑三升一件…朝陽遮蔽補簾”
 47) 58쪽, “御室大廳白紋席白木縮十三張付一浮 溫埃白紋席白木縮四張付一浮 東退白紋席白木縮七張半付一浮…(58)
 48) “御小次[外南門內西邊○房一間…大廳參間半 退四間]”
 49) 『영접도감군색의궤』 192쪽, 「두목분접각방질(頭目分接各房秩) 참조

만 정리한 것이다. 건물명에 근거하면 남별궁의 내부 영역은 ‘내·중내·중·외’로 구획된다.

이러한 영역 구획은 앞서 2장에서 도출한 구획과 차이가 있다. 2장에서는 『군색등록(1608)』의 ‘내남중문’·‘외남문’·‘동·서문’에 근거하여 내부 영역을 ‘내·중·외’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군색의궤(1634)』를 정리한 〈표 6-1〉에 근거하면 ‘내’와 ‘중’ 사이에 ‘중내’가 존재한다. 『빈례총람(1819)』에서는 그 이유가 확인된다.

표 6-2. 『빈례총람(1819)』 수리 항목의 부속건물

건물구분	건물위치	내부구획	내부구획위치
내남루	정사방 남		
내동루	정사방 동		
남행각	남루 남	일대통관방	남행각 서
		일차통관방	대통관방 동
		이차통관방	일차통관방 동
		중문(1칸)	이차통관방 동
		삼대통관방	중문 동
동행각	남행각 동	이대통관방	동행각남변초두
		대고(臺庫)	동행각 누상(6칸)

〈표 6-2〉는 『빈례총람(1819)』의 수리 항목에서 확인되는 부속건물들이다. 〈표 6-1〉과 비교하면, ‘내남루’와 ‘내동루’만 명칭이 같다. 수리 항목에서는 내남루·내동루를 명설루와 남루(몸채) 사이에 기재하면서 내남루가 ‘정사방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내동루는 ‘정사방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내남루와 내동루가 정사방의 내정을 구획했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이어서 〈표 6-2〉에서는 ‘남행각’과 ‘동행각’이 남루 즉 『군색등록(1608)』과 『군색의궤(1634)』에서 ‘몸채[身梗]’로 불린 건물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표 6-2〉의 ‘남행각’과 ‘동행각’은 〈표 6-1〉의 ‘중내남행랑’과 ‘중내동행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부터 내남루, 내동루가 정사방을 중심으로 하는 ‘내’ 영역을 구획하고, 중내남행랑(남행각), 중내동행랑(동행각), 중내서루는 몸채(남루)를 중심으로 하는 ‘중내’ 영역을 구획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이름에 근

50) “內南樓[正使房南○樓五間丹青 北壁墨畫 樓下房四間 中間隔壁羅將巡牢及司譯院下屬所接…南通內門一間] 內東樓[正使房東○樓四間欄干丹青 樓下房二間 正使頭目所接 一間半 卜馭房 一間半 小通詞所接…]”

거하면 남별궁의 영역은 남쪽으로부터 ‘외’, ‘중’, ‘내’로, 부속채의 명칭에 근거하면 ‘외’, ‘중’, ‘중내’, ‘내’로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국왕이 방문했을 때 사신이 나와서 맞이하는 문으로, 『군색등록(1608)』에 ‘내남중문’으로 기록한 문이 ‘내’와 ‘중내’의 경계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내’ 영역을 구획하는 문이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빈례총람(1819)』의 관소배설 항목에서 ‘남루’의 부속 건물로 확인되는 ‘중문 안의 통이칸[中門內通二間]’⁵¹⁾ 남루(몸채)의 남쪽에 중문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본고 <표 1>에 정리한 문들 중에서는 ‘어실중문’과 더불어 각 2인의 수직군을 배치한 ‘두목방서쪽모퉁이문’, ‘내중사랑문’, ‘내중사랑문과 연이어 배치된 소문’이 ‘중내’ 영역을 구획하는 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3-3. ‘내’ 영역의 건물 배치와 동선

남별궁은 남쪽에서부터 외, 중, 중내, 내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빈례총람(1819)』의 ‘관소배설’ 항목에서는 ‘내’ 영역에 위치한 건물 간의 상대적 거리와 건물 사이의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된다. 보행의 편의를 위해 정사방과 부사방으로부터 주요 건물에 이르는 동선에 행보석(行步席)을 깔았다. 『빈례총람(1819)』에는 동선의 방향과 지나는 문, 땅에 깔 석자 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방위상 건물들의 분포와 거리를 도출할 수 있다.

<표 7>에서 보듯 행보석은 정사방의 4개 지점과 부사방의 3개 지점에서 시작하였다. 경로는 정사방에서 부사방으로 가는 것과, 정사방과 부사방의 기점에서 서연청, 개춘정, 명설루로 가는 것이 있다.

정사방의 남퇴와 부사방의 ‘현(軒)’ 사이에는 16장으로 구성된 행보석을 깔았다. 경로 중간에는 ‘통이칸중문(通二間中門)’으로 표현된 ‘중문’이 있다. 이 중문은 본고의 3장 1절에서 확인한, 부사방에서 정사방으로 통하는 ‘통내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사방 대청 북퇴의 기단 위에서 서연청 보계관에 이르는 경로에는 36장을 깔아 거리가 가장 멀다. 경로의 중간에는 서쪽 담장 소문과 부사방 서퇴 전면 기단이 있다. 정사방·부사방·서연청이 동서 축선 상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정사방 북쪽 뜰 가운데에서 개춘정까지는 25장을 깔았다. 북쪽을 향하여 동쪽으로 돌아 층계를 올라 중문으로 들어간 것으로부터 개춘정은 별도로 구획된 동북쪽

정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층 정사방에서 2층 명설루(산우루)에 이르는 경로에는 10장을 깔았다. 대청 북퇴의 기단을 따라 서쪽으로 가서 목층교를 거쳐 누에 올랐다. 정사방 실내에는 명설루로 오르는 시설이 없고, 목층교는 누의 배면 서쪽칸 하부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층계가 설치된 부분은 정사방과 별도로 구획하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표 7. 『빈례총람(1819)』의 행보석 기록⁵²⁾

구분	기점	경유지	종점	석자
정사방	대청 남퇴 전면 기단(階) 위	통이칸 중문	부사방 현(軒) 앞	16장
	대청 북퇴 전면 기단 위	서쪽 담장 소문을 나가 부사방 서퇴 전면 기단 위를 거쳐 서문을 나감	서연청 보계관	36장
	대청 북쪽 뜰 가운데	북쪽을 향하여 동쪽으로 돌아 층계를 올라 중문으로 들어감	개춘정 전면 기단	25장
	대청 북퇴 전면 기단 위	기단을 따라 서쪽으로 목층교 경유	명설루	10장
부사방	대청 전면 남쪽 기단 위	소중문을 경유하여 서문을 나감	서연청 보계관	20장
	대청 서북쪽 모퉁이 북쪽 뜰 가운데		서쪽 담장 북변의 중문	10장
	대청 북쪽 뜰의 기단 위	동쪽 담장의 중문을 경유하여 남쪽을 향해서 목층교를 오름	명설루	6장

부사방에서 서연청까지는 20장을 깔아 정사방에 비해 16장이 적다. 부사방 대청 서북쪽 모퉁이에서 서쪽 담장 북변의 중문에 이르는 경로에 10장을 깔아 부사방 영역의 서북쪽을 담장으로 구획했음을 알 수 있다. 부사방 북쪽 뜰의 기단에서 명설루까지는 6장을 깔아 거리가 가장 가깝다. ‘남쪽을 향해서 목층교를 오른다’는 표현 역시 목층교가 명설루의 서쪽 칸 북쪽에 남쪽을 향하여 오르도록 설치되었음을 알려준다.

52) “行步席永排 各處[自正使房大廳南退前階上由通二間中門至副使房軒前 青木縑白紋席十六張付一浮…自正使房大廳北退前階上出西牆小門由副使房西退前階上出西門至西宴廳補階板上 三十六張付一浮 自副使房大廳前南階上由小中門出西門至西宴廳補階板上 二十張付一浮 自正使房大廳北庭中向北旋東上層階入中門至開春亭前階上 二十五張付二浮雙排 自正使房大廳北退前階上沿階而西由木層橋至明雪樓上 十張付一浮 自副使房大廳西北隅北庭中至西牆北邊中門 十張付一浮 自副使房大廳北庭階上由東牆中門向右上木層橋至明雪樓上 六張付一浮自…]”

51) 본고 <주 29> 참조

4. 1608년 남별궁의 건물 배치와 시기별 변화

앞에서 『군색등록(1608)』·『군색의궤(1634)』와 『빈례총람(1819)』을 이용하여 17세기 전반에서 19세기 전반 남별궁의 영역과 건물들을 살펴보았다. 남별궁의 영역은 남쪽에서부터 ‘외·중·중내·내’로 구분하였으며, 주요 건물들은 ‘중내’와 ‘내’ 영역에 위치하였다. 가장 오래된 기록인 『군색등록(1608)』에 근거하여 남별궁의 영역과 건물을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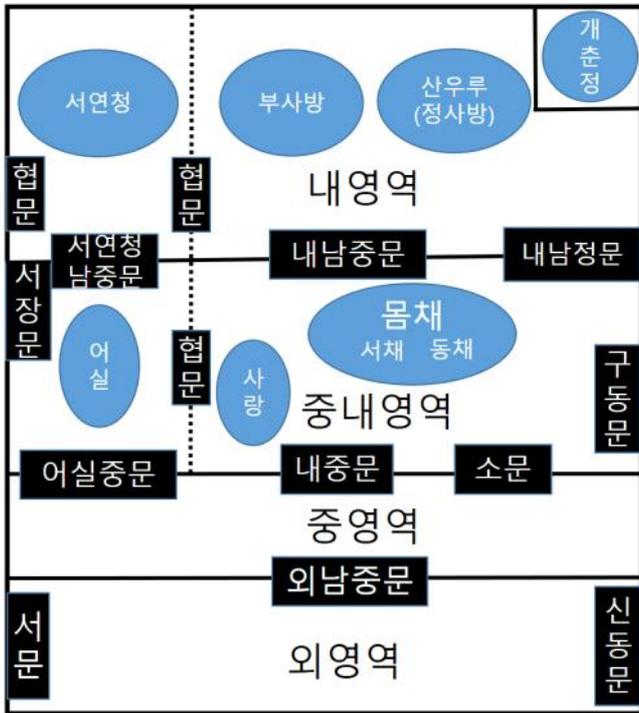


그림 2. 1608년 이전 남별궁의 영역 구분과 주요 건물 분포

남별궁 관소에는 사신단의 대표인 정사·부사의 숙소가 가장 북쪽에 있었다. 정사의 숙소는 중층 건물의 하층에 있었다. 정사방·부사방의 서쪽에는 규모가 큰 ‘서연청’이 있었다. 서연청은 대규모 의례를 행하기에 적합하게 내부가 트인 구조로서 관소로 사용한 시기에 남별궁에서 의례성과 공식성이 가장 강한 건물이었다.

정사방의 동북쪽 동산에는 남별궁이 관소가 된 뒤에 신축한 개춘정이 있었다. 정사방의 서남쪽에는 ‘몸채’가 있었다. 몸채가 있는 영역은 정사방 등 북쪽의 건물들이 있는 ‘내’ 영역과 구별하여 ‘중내’로 불렸다. 몸채는 본래 ‘동채·서채’로 구성되어 단일 건물로서는 남별궁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그러나 1819년 시점에는 규모가 대폭 줄었으며, 명칭도 ‘남루’로 바뀌었다. 몸채의 서쪽에는 어실이 있었다. 사랑(외사랑)도 ‘중내’ 영역에 어실과 가깝게 자리하였다.

1608년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라는 점에서 『군색등록(1608)』에서 확인되는 남별궁의 건물들은 대부분의 의안군방 때부터 유지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 건물의 명칭을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의안군방 때부터 있던 건물과 이후에 신축하거나 변형된 건물들을 분간할 수 있다.

<표 8>은 『군색등록(1608)』, 『군색의궤(1634)』, 『빈례총람(1819)』에서 주요 건물의 명칭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군색등록(1608)』과 『빈례총람(1819)』의 차이가 크고 『군색의궤(1634)』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표 8. 각 자료 중의 건물 명칭 비교

군색등록 (1608)	군색의궤 (1634)	빈례총람 (1819)
동상방 동상침방	정사방	정사방
서상방 서침상방	부사방	부사방
서연청 (후정칸)	서연청 (북중·북극·북퇴)	서연청 (북중·북극·북퇴)
몸채[身梗] (동채·서채)	몸채 (대청정칸·대청)	남루
사랑	사랑	중문 외 연칸(宴間)
어실	어실	어소차
산우루	산우루	명설루

우선, 정사방·부사방은 관소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명칭이다. 그런데 『군색등록(1608)』에서는 ‘두천사의 상방[兩天使上房]’이라고 표기한 뒤에 각 건물에 배치할 물목을 나열하면서 정사방을 동상방(동상침방), 부사방을 서상방(서상침방)으로 표현한 사례가 확인된다. 천사방과 부사방 모두 건물 동쪽방에 온돌을 두었으므로(<표 2-2>), ‘동상방(정사방)·서상방(부사방)’은 건물 내부의 구획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상방·서상방은 본래 의안군방이었을 때의 이름인데 관소가 되면서 정사방·부사방으로 칭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서연청은 세 자료에서 모두 ‘서연청’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남별궁의 ‘서연청’은 1608년 이전에 ‘서청(西廳)’으로도 불렸다.⁵³⁾ ‘서청’은 조선전기 기록에서 태조와 태종, 세조의 사저 등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서청은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거나 대규모 행사를 하는 장소로 나타난다.⁵⁴⁾ 또한 인조는 본래 월산대

53) 『선조실록』 선조 35년(1602) 1월 21일(갑인) “지금은 태평관의 어실 및 남별궁의 서청을 연향을 베푸는 곳으로 삼습니다.”

군방이었던 정릉동행궁(덕수궁)의 서청에서 즉위하였다.⁵⁴⁾ 나아가 ‘서청’은 1478년(성종 9)의 가사제한 규정에서 대군방의 건물 유형으로 확인된다.⁵⁵⁾ 따라서 ‘서청’은 궁방 등 상류 주택에 접객이나 행사용으로 지은 규모가 큰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별궁의 ‘서연청’도 의안군방의 ‘서청’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군색등록(1608)』의 서연청 ‘후정칸’이 『군색의궤(1634)』부터 ‘북중·북극·북퇴’로 바뀐 것으로부터 1608년 이후 1634년 이전에 중국 사신 접대에 적합하게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 구획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군색등록(1608)』의 ‘몸채[身梗]’는 그 명칭으로 미루어 의안군방의 중심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몸채는 ‘동채’와 ‘서채’로 구성되었으나 관소가 되면서 위상이 낮아지고 규모도 크게 축소되었다. ‘사랑’도 조선전기부터 상류 주택에 건축된 특정 유형의 건물을 뜻했다는 점에서 의안군방 때부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층이 곧 정사방인 산우루(명설루)는 상층도 양방(涼房)과 청으로 공간을 구획하였다. 조선전기 상류주택에는 주거용 층루를 건축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조선전기 이래의 건물일 가능성이 크다.⁵⁷⁾ 특히 서청과 더불어 대군방의 건물 유형으로 특정되었던 ‘침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어실은 규모가 작은 동향 건물이라는 점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했을 수도 있으나 국왕 전용 건물이라는 점에서 신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군색등록(1608)』에서 확인되는 건물들은, 어실과 개춘정을 제외하면, 1583년 ‘의안군방’ 때부터 이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의안군방일 때에는 ‘중내’ 영역의 ‘몸채’가 중심 건물이었으며 몸채 가까이에 외사랑이 있었다. 후면의 ‘내’ 영역에는 침소용 건물인 ‘동상방(산우루)·서상방’과 접객용 건물인 ‘서청’이 있었다. 그리고 일자형의 층루와 행랑이 중심 건물을 둘러싸고 각 영역을 구획하였다. 『군색등록(1608)』은 조선전기 의안군방의 건물배치를 알려주고, 『빈례총람(1819)』은 조선후기 정형화된 관소의 건물배치를 알려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수선전도』를 이용하여 중국 사신의 관소가 있었던 남별궁의 위치와 좌향을 확인하였다. 남별궁은 도성의 남부 회현방에 남향으로 자리하였다. 이어 『군색등록(1608)』·『군색의궤(1634)』·『빈례총람(1819)』을 이용하여 남별궁 내부의 영역 구분, 건물 내부의 구획, 건물 배치를 확인하였다.

남별궁은 크게 동·서 대문과 외남중문 사이의 영역(외), 외남중문과 내남중문 사이의 영역(중), 내남중문 이북의 영역(내)으로 삼분하였다. ‘중’ 영역은 다시 ‘중’과 ‘중내’로 구획하였다. 따라서 남별궁의 내부 영역은 남쪽으로부터 외·중·중내·내로 구성되었다.

남별궁의 건물들은 『군색등록(1608)』으로부터 빈례총람(1819)』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유지되었다. 그러나 건물의 위상이나 규모에는 변동이 있었다. 『군색의궤(1634)』를 작성할 때까지는 ‘몸채[身梗]’가 단일 건물로는 규모가 가장 컸다. 몸채는 의안군방의 중심 건물이었다. 그러나 관소로 쓰이면서 ‘내’ 영역의 동상방(정사방)·산우루와 서상방(부사방), 서청(서연청)의 위상이 높아졌다. 반면, 몸채는 두목 이하 수행원의 숙소가 되어 위상이 낮아지고 용도가 위축되었다. 이에 몸채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고, 이름도 ‘남루’로 변하였다. 의안군방 때부터 있었던 사랑도 이름이 ‘연칸[宴間]’으로 바뀌었다.

한편, 개춘정은 1602년 이후에 지어 1608년에 황제의 부의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국왕이 사신과 만나기 위해 대기하는 어실(어소차)도 새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빈례총람(1819)』은 장기간 관소로 사용하면서 관소에 적합하게 정형화된 남별궁의 구조를 보여준다. 『빈례총람(1819)』의 관소 구조는 1897년 무렵 고종이 원구단을 짓기 위해 철거하기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군색등록(1608)』에서 확인되는 남별궁의 영역과 건물 배치, 건물 내부의 구획은 1583년에 확장한 의안군방의 구조를 대부분 유지하였다. 따라서 1608년 이전 남별궁의 영역 구분과 건물 배치는 조선전기 궁방의 기본 구조를 따랐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선전기 궁방의 보편적 구조와 조선후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

54) 『태조실록』 권1 총서 ;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1404) 10월 21일(기축) ; 『단종실록』 권13권 단종 3년(1455) 2월 4일(경진)

55)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1623) 3월 13일(계묘)

56) 『성종실록』 권95, 성종 9년(1478) 8월 22일(신해) : “대군의 집은 60칸 안에 정방(正房)·익랑(翼廊)·서청(西廳)·침루(寢樓)가 전퇴·후퇴(前後退) 아울러 12칸입니다.”

57)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 참조

참고문헌

1. 『영접도감군색등록』 (규 14552, 규 14553)
2. 『영접도감군색의궤』 (규 14565, 규 14566)
3. 『빈례총람』 (규 1344-v.1-3, 규 5434-v.1-3, 규 17273-v.1-3)
4. 송인호·조은주, 「조선 별궁 어의궁(용흥궁)의 도시 위상과 영조의 친영」,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권 5호, 2011
5.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
6. 정정남, 「임진왜란 이후 남별궁의 공해적 역할과 그 공간 활용」, 건축역사연구, 18권, 4호, 2009
7. 정정남, 「효종대 仁慶宮內宮家の 건립과 그 이후 宮域의 변화」, 서울학연구, 39, 2010
8. 조영준, 「조선후기 궁방(宮房)의 실체」, 정신문화연구, 31-3(통권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9. 주남철, 『궁집』 일지사, 2003
10. 주남철, 「조선시대 청평위궁(淸平尉宮)의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권, 7호, 2011
1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 (<http://kyu.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접수(2019. 10. 21)

수정(1차:2020. 2. 1)

게재확정(2020. 2. 9)